

⊗ 교직원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1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126기도모임

북한난민 보호시설 UN에 청원

한기총, 전세계 기독교인 100만명 서명운동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 워싱턴포스트 2월 12일자 1면 머리가사로 대서특필되면서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고난 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시고 “나 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북한을 떠나 외지에서 참담한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3·1절 제 80주년을 기하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126중보기도모임’ 섬김위원 국제대회에서 이종윤 목사의 발의로 126기도모임 섬김위원들이 즉석에서 ① 북한 탈출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과 ②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인접 국가에 해 달라는 청원을 UN 난민고등판무관

에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우선 이같은 사실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건의하고 한기총은 전세계 기독교인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북한 탈출자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돕기로 한 것이다.

지난 12일 한기총 교회발전위원회(위원장 이종윤)는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고 이를 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추진을 위한 조직과 실시방안을 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비전126중보기도모임에 다녀와서

“의로운 나라로 부흥케 하소서”

김상철(장로, 제 3교구, 비전126 중보기도모임 총무위원)

‘비전126중보기도모임’은 3·1절 80주년을 맞은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에서 섬김위원 국제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는 한국에서 이종윤 목사 등 33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등 70여 명이 모였다.

‘비전126중보기도모임’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도다”라는 시편 126편을 주체성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관에 입각하여 교역자와 평신도가 초교파적으로 모여 시대의 의미를 깨닫고 나라와 민족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모임이다. 1995년 1월에 한경직 목사, 정진경 목사, 이영덕 장로, 최장근 장로를 고문으로 모시고 창립하여 현재 한국에 12개 지회, 미국에 7개 지회가 활동 중에 있다.

이종윤 목사는 교회예배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시 33:12)는 말씀을 통해 오늘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다시 한번 80년 전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간구를 드려 복 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자고 전했다.

돌이켜 보면 조선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국가 주권을 잃게 된 후부터 사경회와 기도운동이 시작되어 1907년에는 평양 장대현교

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뜨거운 회개와 성결운동이 전개됐다. 이때 배태된 신앙이 자라나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적 자세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실 조선 5백년은 종묘사직은 있었을지 모르나 국가의식은 쇠퇴를 계속하여 나라까지 잃게 되었는데 새로운 국가의식의 작은 기독교 정신에서 발아하여 개화기와 3·1운동을 거치면서 자라나 1948년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탄생케 했다고 하겠다.

이후 6·25사변 등 국가적 위기마다 벼랑끝에서 극적 전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도들의 절박한 기도의 간구가 상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국제대회에서의 말씀, 특강, 기도, 보고 등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영적인 감동을 체험했다. 한국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로 나뉘어 대립과 경쟁을 벌인 것은 극적 대미를 통해 공산주의의 허위와 억압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모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세계 150여 개국에 우리 민족이 5백만명도 넘게 두루 퍼져있고 또

미국의 우수 대학마다 수백 명의 한국계 학생들이 학업에 열심인 것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일 것이다.

고난과 수치로 점철되어 온 우리 민족의 역사나 오늘날 저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동포의 수난과 이에 대한 동참의 요구는 억압과 수난의 땅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힘겨운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연단의 과정임을 알게 됐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물질주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바라보았으나 이제는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하겠고 나라의 목표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의로운 나라’에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북한 동포의 기근과 억압 그리고 북한 지배 집단의 벼랑끝 위기 전술에 직면하여 민족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는 이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화된 자유민주국가로 통일시키고 이어 의로운 나라로 영적 부흥을 이루어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갈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적인 지휘 참모부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세계 한민족을 중보기도운동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게 됐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역사하시도록 간구한다면 분명 우리 민족의 살길과 나아갈 길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

이사야 강해

애굽에 대한 경고

이사야 19장 1-10절

앗수르는 유다 백성에게 부러진 막대기였고 애굽은 상한 갈대에 불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앗시리아와 애굽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앗시리아는 심판할 것이고 애굽은 부지깽이처럼 꺾이어서 불 속에 들어갈 나라에 불과 하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애굽이 지금 온 세계를 호령하는 굉장한 나라인 것 같지만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비천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것은 심판의 신속성을 말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게 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름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은 인간 가운데 없습니다.

애굽은 우상의 나라로 각종 동물을 섬기고 심지어는 곤충까지도 섬겼습니다. 우상은 환난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애굽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애굽에는 촌락에서 궁궐까지 평안한 곳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애굽에는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에는 애굽인들의 지혜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미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애굽인들이 잔인한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애굽의 심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 애굽의 멸망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리실 때는 전쟁 뿐 아니라 천재지변을 통해서 온 애굽의 산업을 전

부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교만한하던 인간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 강을 바다라고 불렀고 강

애굽의 죄는 첫 제로 교만한 죄이며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인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무조건 죽이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애굽인들은 경솔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결정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라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잿아서 마르겠고 강 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베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가동이 부셔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종운 목사



은 나일 강 물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강이 마르므로 종이의 귀중한 원료가 되는 갈대(papyrus)와 부들이 시들고 8절에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 모든 산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섬유업자들의 비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대한밭이 일어나서 나일 강이 마르고 곡식 밭이 마르니 목축과 농업이 타격을 받고 마침내 이들에게 가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둥이란 애굽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고용인들이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 나라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도 국민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를 만큼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은 잠깐 동안 경제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인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민족에게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3.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

애굽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5 가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애굽인들의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애굽에서 선교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저주받은 민족이어서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계의 모든 민족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애굽 사람과 같이 교만하고 욕심에 차 있고 잔인하고 경솔하며 우상을 섬깁니다. 애굽은 애굽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급속하게 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순간 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한나라도 더 넘어뜨려서 지옥의 자식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무엇보다 형제끼리 화목하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인들 때문에 애굽의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범죄하면 이 땅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배워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예배당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자와 감독자는 우리 주님

권영옥(권사, 제 8교구)

성군 다윗에게도 허락지 않으셨던 성전 건축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어찌 다 감사를 드릴까. 서울교회 성도로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다락방 예배를 드린 후 성전 건축 현장이 궁금해 먼거리지만 전철을 타고 달려가 봤다. 먼저 공원 동산에 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축 현장을 보니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왔다. "이 동산이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처소요 응답받는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에 들어서면서 친히 시공자와 감독자가 되시어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기뻐하시는 주님을 뵈듯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그곳에서 현장 책임자와 손을 잡고 권면하

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 흠판을 실어내는 트럭이 무려 90대이며 7월까지 진행되는 굴착작업이 가장 힘든 공사라고 했다. 아울러 기도를 부탁하시며 "자주 와 주세요" 라는 말에 뼈를 깎아 보답하고픈 심정이었다.

'백문불여일견' 이라 했던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현장을 목격하면 더욱 더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와 헌신의 다짐과 결단이 생겨서 새 예배당 건축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다.

돌아오는 전철 속에서 그곳 현장 청사진을 가슴에 안고 계속 기도하면서 자주 오긴 어렵지만 시간을 꼭 내어 자주 둘러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기로 다짐했다.

살짝 엿본 풍경 - 주방

서울 스카이파크에서

토요일 오전,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한 옥탑층 식당 주방에 들러 보았다. 겨우내 움크리고 있던 봄바람은 때 이른 몸짓으로 교회 옥탑 뜰안을 휘감고 지나가고 꽃샘 추위 속에 가만히 다가온 연두빛 봄별은 꼬리를 흔들며 옥탑 주방을 노크한다. 잠시 머물다 옮겨질 것만 같은 우리 교회 옥탑층의 식당은 마치 출애굽 때에 광야의 구름기둥 밑에 처진 장막이 주는 의미있는 원초적 고풍 식당이 아닌가. 주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는 우리들의 안식처.

주일을 정성껏 준비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토요일의 주방은 집안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달려 오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의 도가니가 된다. 저마다의 성령충만한 봉사의 기쁨이 사랑의 손맛과 어우러져 주방의 열기는 지나가던 천사도 멈출 것 같은 아름다운 현장이요 그곳의 모인 모든 봉사자가 바로 천사의 모습이었다.

주방 한 가운데 깨끗이 씻긴 무는 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겨우내 바람들고 병든 부분을 도려낼 준비를 하고 있다. 마치 우리의 더러운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세상의 바람들고 썩은 부분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반듯이 자

을 뜨듯 무를 잘 다듬고 반듯반듯하게 썬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 익혀 인내와 겸손으로 뜸을 들이고 매일의 성실함으로 간을 잘 맞춘 맛갈수런 한 그릇의 무국처럼 우리의 삶도 이처럼 보기 좋고 맛도 있어 하늘나라의 소문난 성도가 되었으면...

주방에는 항상 일손이 모자란다. 그래서 작은 자투리 시간까지 모아야 겨우 돌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다. 마음과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주방에서 일하는 즐거움 또한 우리 지체들의 영역이리라.

주방의 모든 수고가 하얗게 삶아진 행주보에 가득 싸매져 하늘나라 식탁에 소복히 쌓이기를 기도드린다.



제 5학기 서울성경대학

등록비는 과목당 오천 원이며 이번 학기 첫 수강자의 등록비는 입학금을 포함하여 일만 원이다. 문의는 사무국.

서울성경대학 제 5학기 교과과정표 (3~6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서울성경대학	야고보서	월요일 오후 8시	지혜영전도사	3월 29일
	말라기	화요일 오전 6시	박귀환 목사	3월 30일
	고린도전서	화요일 오후 8시	이성득 목사	3월 30일
	노헤미야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월 1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7시반	허희철 집사·안진선 선생	4월 1일	

새 학기를 맞으며

신입생과 세월

윤갑숙(권사, 청년부 부감)

이제 막 대학문턱에 들어선 젊은이들은 어떤 꿈과 이상을 가차고 인생의 나래를 펴 나갈까?

동트기 전 집에서 나가 해가 진 후 귀가 하여 다시 책과 씨름해야 했던 고3의 긴장되고 고통스러웠던 터널을 벗어난 지금 자유와 낭만을 마음껏 누리 보고 싶은 것이 새내기들의 바램일 것이다. 그래서 개강과 더불어 동문회, 동아리, MT 등에서 배풀어 주는 신입생환영회에 따라 다니며 분주하고 들뜬 마음으로 물꼬 튼 해방감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일학년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게 손살같이 지나가고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에 부닥치면서 대학생들의 설계도도 그려보지 못하고 현실과 이상사이에 방황하며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실사야 없이 흘러가는 서간전쟁에 살고 있으며 봄햇살 같은 청년의 날들은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희망의 싹을 키워야 하는 짧고 소중한 시기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계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서간에는 제한이 있으며 더구나 보석 같은 젊은 날에는 그 제한된 시간의 일부에 불과하다. 신입생들은 주어진 젊음의 낭만과 자유를 유감없이 누리되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는 생애를 위한 의의 병기를 다듬는 치열한 모습 또한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지금 우리 부서는 ① - 미가엘찬양대

모든 이의 마음을 여는 찬양

유관승(미가엘찬양단)

말씀이 충만한 우리 서울교회에서 찬양으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미친한 재능이지만 고등부성가대 지휘, 고등부 NLC지도 그리고 미가엘찬양단 리더로 주님을 섬기며 바쁘게 보낸 지도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음악의 강점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쉽게 열게 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 더없이 값지고 귀합니다. 주위에서 찬양으로 부흥된 수많은 교회와 단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교회 안에서 부흥을 이루고 사회를 향해서 적극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찬양을 드리는 방식이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오르간이나 피아노 같은 전통적인 악기 외에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현대악기도 활용됩니다. 또 찬송가에 더해 복음성가로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서울교회에도 아주 훌륭한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재능을 주님 앞에서 성숙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다듬고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넘치는 말씀과 믿음에 더해 주님께 바치는 찬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좀 지나 새 예배당이 완공되면 더 많은 공간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배당이 비록 협소하고 또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이 모든 성도들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른뿐 아니라 젊은 청년과 어린 아이들이 모두 찬양으로 포용되는 매개체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 혹 기다림

에 인색한 젊은이들을 교회의 품에 안는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서울교회에 넘쳐나는 찬양의 힘이 더하기를 간구합니다.

■...미가엘찬양대는 고등부·대학부·청년부 회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찬양팀이다. 이들은 전기기타, 전자드럼, 신디사이저, 베이스기타 등 현대악기를 동원하여 주일 오후 4시 15분부터 온 성도가 함께 하는 '찬양의 시간'에 찬송가와 복음성가로 봉사하고 있다. ...■



지금 우리 부서는 ② - 장년부

햇살 푸르른 장년부 호숫가로

황정욱(집사, 장년부 부감)

갯빛 겨울나무 물 오르는 소리에 밤을 설치고 하늘과 땅 생명의 진동 소리의 영혼을 흔들어 생기있는 봄을 마시게 합니다. 겨울 동안 암울한 시련과 고통의 순간들은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빈 그물을 쫓고 있는 우리들!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싱싱한 고기들이 펴떡거리는 말씀 찬란한 생명의 호숫가로 오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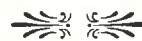
장년부에서는 고기가 넘쳐 찢어지는 그물을 보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할 동무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비단 봄바람의 말씀을 싣고 햇살 푸른 장년부 호숫가에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더욱 아름답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짙어지고 말씀에 매여 교회로, 학교로, 사회로 동부서주 바빠 뛰시는 김성한 목사님! 맑고 신선한 표정은 마치 금방 동요라도 부르실 것같은 영원한 흥안의 소년입니다. 몇년 전 암의 고통에서 죽음과 삶을 넘나들며 새롭게 사신 그 절절한 목숨의

한 조각 같은 뜨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삶의 생기가 퍼져 영혼을 적시는 풀기 있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우는 열정과 눈물은 장년부의 큰 자랑이며 복입니다.

장년부는 생명의 호숫가에서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을 같이 나눌 친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언제나 환영합니다.

■...장년부는 주일 II부 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다음 주일(21일)에는 이만열 전도사를 강사로 특강의 시간을 갖는다. 강의 제목은 '3·1운동과 기독교'이며 특강 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고등부 고3을 위한 기도회

고등부는 3월 28일(주일) 11층 고등부실에서 고 3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취업과 진학을 앞둔 고 3학생과 재수생 그리고 그들을 일년 동안 기도로 후원할 후원자가 99년 첫 만남을 갖게 된다. 후원자들은 취업과 진학을 앞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실력을 쌓는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일년간 기도로 후원하게 된다.

동정

- * 루디아 제 3·4전도회는 15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이종호 집사·최무순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이종은 목사 방송실고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성경대학과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2.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을 위해
3.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